

방문기

흥하는 사회주의농촌의 새 풍경

— 새 집들이 한 락랑구역 남사농장을 찾아서 —

공화국에서 새로운 사회주의 농촌건설경력의 생활력을 보여주는 선경마을들이 이르는 곳마다에서 현이 일어나고 있는 가운데 얼마전 락랑구역 남사농장마을에서도 새집들이경사가 됐다.

회한 새 살림집들을 받아안고 크나큰 기쁨과 격정으로 설레이는 주민공들을 만나보고싶어 우리는 취재길에 올랐다.

남사농장입구에 들어서니 규모있게 늘어선 아담하고 번듯한 단층, 소층, 다락살림집들이 아름다운 한옥의 그림처럼 눈앞에 펼쳐졌다.

우리와 만난 농장의 문턱 너머는 불과 몇달사이에 이렇듯 현대적인 농촌살림집들이 일떠섰다고, 꿈속에서나 그려보던 황홀한 살림집들에서 사시절 손에 흙을 묻히고 논밭에서 땀흘리는 평범한 농업근로자들이 살고있다고 이야기하였다.

그의 안내를 받으며 우리가 들린 곳은 김철수농장원의 집이었다.

햇빛이 비쳐드는 널찍한 살림방이며 밝고 시원한 부엌, 세면장과 위생실, 창고 등 모든것이 생활에 편리하게 꾸려져있었다.

어느곳을 보나 흠잡을데 없이 잘 꾸려진 살림집을 돌아보며 감탄을 금치 못하는 우리에게 김철수농장원은 말하였다.

《도시에서 일터는 새 농촌마을들을 보면서 부러움을 금치 못했었는데 우리에게도 이런 훌륭한 집이 차례질줄이야. 정말이지 꿈을 꾸는것만 같습니다.》

김철수농장원은 이사집을 쓴 다음날로 다락식주력을 배경으로 찍은 가족사진을 발전소건설장에 탄원한 아들에게 보냈으며 이 집은 단순한 살림집이 아니라 자식대, 손자대까지 물려줄 행복의 보금자리라며 눈물을 적시었다.

해빛밝은 창가에서 행복에 겨워있는 그와 헤어진 우리는 10여년세월 다수확분조장으로 일하고있다는 정란실녀성의 집에도 들리었다.

《경애하는 총비서동지의 은덕이 아니라면 어떻게 이처럼 훌륭한 새집의 주인이 될수 있었습니까. 하늘같은 은덕에 어떻게 보답해야 할지...》라고 말하는 정란실녀성의 목소리는 우리의 심금을 울리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뜨거운 열과 정이 깃든 사랑의 결정체, 인민을 마음속 첫자리에 놓으시고 위민헌신의 길을 걷고 또 걸으시는 위대한 어머니의 체온이 그대로 스며인 행복의 새 보금자리에서 사는 농업근로자들의 얼굴마다에서는 행복의 웃음이 넘쳐나고있었다.

《다락식계단을 따라 로대에 올라서면 절로 노래가 흘러나옵니다.》

《부엌세간도 충분히 갖추어져있어 우리 녀성들이 제일 좋아합니다.》

《이 세상에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많아도 위대한 어머니의 따뜻한 보살핌과 사랑속에 사는 우리 농업근로자들처럼 복받은 사람들은



없습니다.》

... 현대문명이 융성된 농촌문화주력의 창가마다에서 울려나오는 고마움의 목소리, 경애하는 원수님이시야말로 인민을 위해서라면 저 하늘의 별이라도 따오시고 돌우에도 꽃을 피우시는 인민의 위대한 어머니시라는 격정의 목소리는 한결같았다.

그들의 이야기를 듣는 우리의 생각은 깊었다.

정년 회한하게 변모된 농촌마을들은 농촌건설을 굳건히 지키고 쌀로써 나라를 보위해온 충직하고 애국적인 농업근로자들이 인민의 리상향에 남먼저 들어서게 하시려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뜨거운 사랑이 안아온 고귀한 결실이 아니겠는가.

리상사회를 앞에 두고 우리는 주춤할 권리도 없고 외면할 권리도 없다고, 그 무슨 조건이 지어지기를 기다릴 권리도 없다고 하시며 최악의 국난속에서도 온 세상이

부러워할 새 농촌살림집건설을 강력히 내밀도록 정력적으로 이끌어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로고와 헌신이 있어 얼마전까지만 해도 리상으로만 그려보던 꿈같은 현실이 눈앞에 펼쳐진것이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뜨거운 열과 정이 깃든 사랑의 결정체, 인민을 마음속 첫자리에 놓으시고 위민헌신의 길을 걷고 또 걸으시는 위대한 어머니의 체온이 그대로 스며인 행복의 새 보금자리에서 사는 농업근로자들의 얼굴마다에서는 행복의 웃음이 넘쳐나고있었다.

《다락식계단을 따라 로대에 올라서면 절로 노래가 흘러나옵니다.》

《부엌세간도 충분히 갖추어져있어 우리 녀성들이 제일 좋아합니다.》

《이 세상에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많아도 위대한 어머니의 따뜻한 보살핌과 사랑속에 사는 우리 농업근로자들처럼 복받은 사람들은

농업근로자들의 모습을.

남사농장마을에 펼쳐진 새 집들이풍경은 우리의 가슴속에 로동당시대와 더불어 끊이지 않는 번영할 부유하고 문화적인 사회주의농촌의 새 모습으로, 민복의 화폭으로 깊이 새겨졌다.

본사기자 김진혁

력사에 기록된 감동깊은 인민적시책들

광천자원을 인민들의 건강증진에 리용하도록 하신 조치

1954년 6월 공화국에서 채택된 내각결정 제79호 《인민보건사업을 개선강화할데 대하여》에는 광천자원을 인민들의 건강증진에 리용하게 하여 온천약수지대를 료양지대로 설정하고 료양시설들을 복구건설하기 위한 계획을 작성할데 대한 내용이 지적되어있었다.

폐허로 된 도시와 농촌을 복구하는 사업만도 아름답게 꾸려주시는 위대한 김일성주석의 뜨거운 배려에 공화국 인민들은 격정을 금치 못하였다.

이미 주체35(1946)년말에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북조선 립시인민위원회 결정으로 일제와 친일주구들의 소유였던 약수, 온천치료시설들을 국유화하도록 하시고 이듬해 4월에는 당중앙위원회 상무위원회 결정으로 료양, 기술자, 사무원들을 위한 료양소를 건설할 조치를 취해주셨었다.

준엄한 전하의 나날 동창군 대동리에서 찾아오는 한

줄기 약수를 보시고 전쟁이 끝나면 이곳에 료양소를 지어주어야 한다고 하시며 약수, 온천들을 조사장악하여 인민들의 건강증진에 효과적으로 리용하기 위한 대책을 취해주신 아버지수령님이시었다.

그후에도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전문적인 광천연구소와 광천조사대를 조직하여 광천조사연구사업을 더욱 심화발전시키도록 하시는 한편 료양소건설을 전문중추위원회로 벌리도록 하시었다. 하여 료양소건설이 본격적으로 진행되었으며 그 수는 전국적으로 수백개소에 이르게 되었다.

그뿐이 아니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조선로동당 제4차대회에서 중요한 온천, 약수지대에 료양소를 더 많이 지을데 대한 강력한 과업을 제시하시었으며 그후 꾸러진 모든 료양소들에 유능한 의사와 간호원들을 배치하고 여러가지 료법들을 배합하여 치료하도록 정연한 료양치료체제도 세워주시었다.

나라의 광천자원을 인민들의 건강증진에 리용하도록 하신 위대한 수령님의 사랑은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 의하여 더욱 뜨겁게 인민들에게 가닿았다.

어느해인가 뜻하지 않게 강서약수의 샘물이 끊어졌을 때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강력한 연구집단을 보내주시어 본래보다 10배 더 많은 양의 약수샘물을 찾아주시었다.

오늘 양덕온천문화휴양지를 비롯한 약수터, 온천들마다에서 인민들의 웃음소리가 높아가고있는것도 광천자원을 적극 개발리용하여 인민들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도록 이끌어주시는 경애하는 김정원수님의 극진한 사랑과 은정을 떠나 생각할수 없다.

광천자원이 근로인민의 행복을 위한 귀중한 재물로 되어 인민들의 건강증진에 적극 이바지하고있는것이야말로 대를 두고 같이 전해야 할 절세위인들의 인민사랑의 전설이다.

본사기자 흥범식

함께 울고웃으며 사는 화목한 대가정

인간사랑의 화원이 꽃피는 계절이 따로 없다

공화국에서는 자기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고 그들의 불행과 아픔을 자기 자신의 불행과 아픔으로 여기며 성심성의로 도와주고 위해주는 미덕과 마음이 어디서나 높이 발휘되고있다.

지난해 6월 평양의학대학병원으로 심한 화상을 당하여 생명이 빛이 꺼져가던 한 어린이가 실려왔다.

이름은 김현영, 나이는 7살, 만경대구역 선구자초학교에 다니는 학생이었다.

전신 50%에 2~3도 화상을 입은것으로 하여 현영의 몸에서는 성한 곳을 찾기가 어려웠다.

병원에서 환자치료를 위한 집중치료를 받고 해당한 대책들을 세워나갔지만 기성리론에 따르면 이런 최중증환자의 생명은 거의 불가능하였다.

게다가 돌발적인 보건위기로 인해 악성전염병과의 투쟁을 벌리고있던 때여서 몇배나 많은 약이 필요한 현영이 대한 약품보장이 순조롭지 않았다.

하지만 친혈육보다 뜨거운 사랑을 안고 의사, 간호원들은 의술만이 아닌 인술로, 둘우에도 뜻을 피우는 지극

한 정성으로 긴장한 치료전투를 벌리었다.

피부이식수술만 놓고보아도 6시간나 진행되었다. 의사, 간호원들은 온몸이 땀주머니가 되었지만 누구 하나 자기 한몸을 생각하지 않았고 끼니를 버리면서도 수술장을 떠나지 않았다.

어제 그뿐이라. 화상들을 빼고 새살이 돋는데 순두부 음식이 좋으며 어린 현영의 입에 떠넣어주기도 하고 여러가지 보양제를 마련해가지고 친혈육의 정을 기울여 주던 의사, 간호원들... 마침내 현영은 기적적으로 소생하였다.

예로부터 우리 민족은 덕과 의리, 정을 귀중히 여기고 서로 위해주고 아끼면서 화목하게 살아왔다. 《가는 정이 있어야 오는 정이 있다.》 《냉은 정보다 기운 정이 더 크다.》 등을 비롯하여 정과 관련한 성구, 속담들이 많이 전해져오는것은 류타락 정이 많은 우리 민족의 생활습관을 잘 반영하고있다.

그러나 훌륭한 민족정통이 라고 하여, 대를 두고 이어져오는 풍습이라고 할수 없는 자신심 넘쳐 우리 이름 청춘이여라 불멸의 우리 당을 담아 희망차다 청춘이여...

는 사회에서나 저절로 이어지고있는것은 아니다.

한번 눈길을 돌려 세상을 둘러보라. 황금만능, 약육강식이 인간관계의 기초로 되고있는 사회가 얼마나 많은가.

특히 일신의 안일과 향락을 위해 자식이 부모를 죽이고 부모가 자식을 살해하는 상상조각 할수 없는 일까지 벌어지고있는것이 안타깝다.

남조선에서 더욱 심각한 사회적문제로 되고있는것은 정의와 진리를 사랑하고 아름답고 고상한것을 지향해야 할 젊은 세대가 강력범죄의 길에 들어서고있는것이다.

하지만 덕과 정이 풍기처럼 흐르는 이 땅, 모든 사람들이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면서 화목한 대가정을 이루고 사는 공화국에서는 미덕과 미용의 꽃들이 사시절 계속 피어나 사회주의대화원을 아름답게 하고있다.

이러한 미덕과 미용의 대화원은 어떻게 마련되었인가.

본사기자 김철

지금도 생사를 다두는 위험한 시각에 한몸을 기꺼이 내어놓는 동지들을 구원한 연배들의 한 평범한 농장의 소행을 두고 경애하는 김정원수님께서 보내주시 친필은 만사마의 가슴을 뜨겁게 울려주었다.

집단과 동지들을 위해 목숨까지도 서슴없이 바치는 것은 수령님과 장군님께서 키우신 우리 시대 인간들만이 지닐수 있는 미덕이라고, 리창성최후의 희생정신과 빛나는 최후는 시대정신으로 우리들의 기억속에 영원할것이라고 하신 경애하는 원수님.

그렇다. 태양의 빛과 열이 있어 온갖 꽃들이 피어나는 것처럼 공화국에 펼쳐진 인간사랑의 최고화원이신 위대한 수령님께서 마련해주신것이 옳고 오늘도 수령님의 숭고한 뜻을 이어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에 의하여 더욱 발달하고있다. 이 인간사랑의 대화원, 미덕과 미용의 대화원에서는 꽃피는 계절이 따로 없고 언제나 미덕과 미용의 백화가 만발하고있다.

본사기자 김철

독자문답

재동동로 한희진선생이 제기한 질문

올해는 공화국의 발전행로에서 어떤 의의를 가지는가

올해는 공화국에서 조선로동당 제8차대회가 제시한 5개년계획실현에서 판적적의의를 가지는 새번개 해이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6차전원회의는 국가경제발전 5개년계획완수를 위한 더 높은 목표와 방대한 과업이 나서고있는 올해를 국가경제발전의 큰걸음을 내딛는 해, 생산장성과 정비보강전략수행, 인민생활개선에 관한 인민적 목표들을 달성하는 해로 규정하였다.

조선로동당 제8차대회 결정관철을 위한 지난 2년간의 투쟁에서 달성한 성과는 참

으로 크다. 그러나 5개년계획을 성과적으로 실현하고 자립경제력, 국가의 힘을 최대한으로 높이기 위해서는 더 큰 진군목표를 내걸어야 한다.

공화국에서는 올해 사업의 총적방향을 사회주의건설에서 새로운 국면을 열기 위한 전인민적인 투쟁을 더욱 확대발전시켜 5개년계획완수의 결정적담보를 구축하는것으로, 경제사업의 중심과업을 전반적부문과 단위들의 생산을 활성화하면서 당대회가 결정한 정비보강계획을 기본적으로 끝내는것으로 확정하였다.

올해는 공화국에 있어서 조국해방전쟁승리 70돐과 공화국창건 75돐을 기념하게 되는 뜻깊은 해이기도 하다.

2022년의 완강한 투쟁을 통하여 축적된 경험과 교훈, 실제적진전에 토대하여 새로운 비약의 진로를 밝혀주고 가장 정확하고 효과적인 방향을 세워 국가발전의 새로운 활로를 열어나감으로써 사회주의영국건설에 쌓아 올린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업적을 후손들에게 끝없이 빛내여나가려는것은 조선로동당과 공화국정부의 드림있는

의지이다. 지난해 뚜렷하고도 의미있는 진전을 이룩하는 투쟁을 통하여 공화국은 자기 힘에 대한 확신과 새로운 전진발전을 위한 가능성과 자신심을 더욱 명확하게 가지게 되었으며 변혁의 중심고리들을 더 명백히 찾아내게 되었다.

올해도 전진도상에 시련과 난관이 가로놓이게 될것이지만 공화국은 주체조선 특유의 불기항력으로 온갖 난국을 타개하고 부흥강국건설을 힘차게 다그쳐나갈 것이다.

본사기자



웃음집에서

를관인민위원회 웃음집에서 웃음꽃이 활짝 피어나고있다.

사람들과 친숙해진 만화영화 《소년장수》에서 나오는 주인공들의 모습에 자기들의 얼굴이 비끼자 웃스 못할것라는 듯 좋아하고 웃고 떠드는 사람들.

이들이 아니라 불특정, 불특정 등 다양한 형태의 수지거울들에서도 누구나 배를 그려놓고 웃는다.

웃음집에서 터져나오는 웃음, 단순한 즐거움의 웃음이 아니다.

세상에 돌도 없는 사회주의사회에서 사는 더없는 행복과 기쁨의 분출이 더 좋은 레일에 대한 희망과 낙관의 웃음이다. 글 및 사진 본사기자 심용석

머칠전 아침밥을 지으며 부엌으로 나가면 나는 아예방에서 새어나오는 탁상등불빛을 보고 저도 모르게 미소를 지었다.

대학을 졸업하기 전에 세계적 건축기술을 압도하는 그 무슨 발명을 한다고 하면서 요사이 참드 제대로 자지 않는 막내아들, 이제 문을 열고 들어가면 탁상등불에서 사색의 나래를 펴고있는 아이들의 얼굴이 눈앞에 떠올랐기때문이다.

그러다 밀친듯했다며 나무람을 해도 《그래서 청춘이라고 하지 않아요. 생의 활력이 약동하는 청춘...》 하며 웃음으로 넘기는 대견한

아들이다. 몇해전에는 대학을 졸업하고 백두산영웅청년발전소로 탄원하게 되니 만이 저렇게 이야기하더니 지금은 막내까지도 저 이야기의 밤을 지새운다. 《청춘, 참 좋은 시절이다. 몇 밤을 지새우고 힘든줄 모르고 저렇듯 열정에 넘쳐있으니...》

아들의 열정과 패기가 마치 푸른 숲의 싱그러움 향기처럼 내 가슴에 흘러드는 데 다음순간 떠오르는 글줄이 있었다. 언젠가 신문에서 보았던



기사의 한 대목이다. 《청춘은 푸른빛이 아니라 피땀이다. 가늘은 손목에 칼을 그었다. 붉은 피방울로 한 글자한글자 썼다. (내 돈 내

...)

거리의 나무들에 푸름이 질어가던 어느 봄날에 일차리를 잃은 남조선의 한 청년이 밀린 임금과 퇴직금을 받지 못한것때문에 절망에 빠져 자살을 시도한데 대해 쓴 글이다.

청춘은 푸른빛이 아니라 피땀! 청춘은 깊어진다. 청춘은 말 그대로 인생의 푸른 계절이다. 그 용감성과 진취적인 기질로 하여 그 어느 세대보다도 아름답고 힘있고 가치있는것이 바로 청춘이다.

하늘에 팔을 뻗으면 별인들 못따오랴 힘차게 발을 구르면 산악도 허물어지리

《청년빈곤》, 《청년백수》, 《은둔형의토리》, 《빛쟁이세대》, 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한 《3포세대》에 이어 모든것을 포기한 《N포세대》에 이르기까지...

그러나 우리 공화국은 어떠한가. 청년전위, 애국 청년, 사회의 가장 활력있는 부대, 사회주의문명의 창조자... 이 부름속에 공화국청년들의 모습이 비껴있다.

청년들이 언제나 어렵고 힘든 일의 앞장에서 돌파구를 열어나가며 고마운 어머니조국을 위해 청춘을 바치는것

남조선의 자살자들속에 20대, 30대의 청년들이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는 자료만 놓고보더라도 왜 남조선에서 청춘을 피맛으로 부르는가에 대하여 잘 알수 있다. 청춘이 버림받고 천시되는 사회, 꿈과 희망, 메기와 열정, 회멸과 광만의 대명사인 청춘이 온갖 좌절과 실재, 외로움과 무력감, 불행과 고통의 동의어로 되고있는 곳이 바로 남조선이다.

을 더없는 생의 보람으로, 행복으로 여기는 우리 사회와 청년들이 인생을 망치고 사회의 골치거리로 버림을 받으며 절망과 타락, 범죄와 자살의 길에 들어서고있는 남조선사회.

언제 밤을 지새웠나실게 활짝 웃으며 나를 포옹하는 아들이 깊은 생각속에 잠겨있던 나를 깨웠다.

조국을 위한 길에서 보람과 긍지를 느낄수 있는 미더운 나의 아들들.

아들을 바라보는 나의 뇌리에 한자한자 이런 글이 새겨지고있다.

《청춘의 빛깔이자 그 사회의 빛깔이다.》 리현숙

